

‘황반병성 치료제’ 임상3상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13개국 환자대상
고품질 의약품 치료 접근성 확대
매년 1개 이상 의약품 허가 목표

셀트리온은 황반병성 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CT-P42’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상 3상은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3개 국의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을 대상으로 CT-P42와 아일리아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일리아는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블록버스터 안과질환 치료제로,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아일리아의 글로벌 매출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2조5000억원(75억4160만 달러)을 기록했다.



셀트리온 연구원 사진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CT-P42 개발에 나섰으며, CT-P42는 올해 상반기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이 예상되는 CT-P17(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과 현재 글로벌 임상 중인 CT-P16(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39(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1(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과 함께 셀트리온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아일리아의 미국 독점권이 2023년 11월에 만료된다는 점에 착안해 CT-P42 개발에 착수했다”며 “CT-P42 글로벌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쳐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코로나 토종치료제·백신 확보

이달부터 예방·치료 ‘두토끼’

‘렉키로나주’ 조건부 허가 승인
‘나파벨탄’ 설 명절 전후 허가 신청
코로나 백신 이르면 이달 중순 접종

새로운 치료제·백신 확보로 이르면 이달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모두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어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맵)의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해 허가받은 첫 코로나 치료제다.

이 약은 경증 중 고위험군과 중등증 환자(성인)에 투여하도록 허가돼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 치료를 위한 옵션을 확보했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진 경증 환자를 말한다.

렉키로나는 원칙적으로 시판허가일인 5일부터 바로 투여할 수 있다. 셀트리온은 이미 10만명분의 생산을 끝냈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회사와 질병관리청은 논의 중이어서 공급가격과 투여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환자엔 무료로 투여될

가능성이 높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중 본격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근당도 설 명절 전후로 식약처에 코로나 치료제 ‘나파벨탄’의 조건부 허가 신청을 낼 예정이다. 중증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개발 중이다. 증상이 경미한 환자 대상인 셀트리온 치료제가 관리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40일 가량 걸린다.

코로나 백신 역시 이르면 이달 중순 이후 접종이 본격 시작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4일 회의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다. 허가를 위한 두 번째 자문회의 단계다. 추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 결정이 나온다.

중앙약심은 이 백신의 ‘효능·효과’를 유럽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설정해 고령층 사용의 길을 열었다.

하지만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만 65세 이상의 백신 접종 여부는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의견을 냈다.

/이세경 기자

할매 입맛에 딱... 배라 ‘아이스 찹쌀 경단’

(배스킨라빈스)

할매입맛 밀레니얼 고객 취향 반영
특별한 설 선물 찾는 고객 니즈 겨냥

SPC그룹이 운영하는 배스킨라빈스가 2021년 설을 맞이해 신제품 ‘아이스 찹쌀 경단’을 선보이고, 설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7일 배스킨라빈스에 따르면 ‘아이스 찹쌀 경단’은 한국의 전통 다과인 찹쌀 경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탄생했다. 최근 할매입맛을 즐기는 밀레니얼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하고, 남들과 다른 특별한 설 선물을 찾는 고객 니즈를 겨냥했다.

‘아이스 찹쌀 경단’은 쫄깃한 찹쌀떡 속에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가득 채워 넣고, 제품 표면에 고소한 고풍(카스텔라, 흑임자)을 듬뿍 뿌린 이색 디저트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돋보이는 ▲아이스 찹쌀 경단 팔 ▲아이스 찹쌀 경단 흑임자 ▲아이스 찹쌀 경단 크림치즈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배스킨라빈스는 ‘아이스 찹쌀 경단’을 색동 저고리를 연상케 하는 전통적인 패키지에 담은 설 선물세트로도 선보인다. ‘아이스 찹쌀 경단’ 3종이 모두 들어간 선물세트의 가격은 1만7700원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SPC 배스킨라빈스, 설 맞이 ‘아이스 찹쌀 경단’ 선물세트 출시

등산 인기에 ‘무브’ 업그레이드 출시

코오롱FnC 아웃도어 스니커즈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 코오롱스포츠가 2021 S/S 시즌을 맞아 아웃도어 스니커즈 ‘무브(MOVE)’를 업그레이드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브는 캐주얼한 스니커즈 외관에 코오롱스포츠만의 등산화 기술을 담아 낸 것이 장점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벼운 아웃도어 활동이 증가하며 밀레니얼로 대표되는 2030 세대들이 등산 엔트리 상품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에 코오롱스포츠는 이번 시즌 무브의 기능을 높이고 기존 3개 컬러를 5개로 확장해 선보인다.

무브는 릿지화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으로, 구멍(구멍쇠가 있는 부분)이



코오롱스포츠의 아웃도어 스니커즈 ‘무브’ S/S 신제품 이미지. /코오롱FnC

발등부터 발가락까지 이어지다가 고무 소재의 토캡을 배치, 독특한 스타일을 완성했다. 여기에 고어텍스 3L(레이어)을 안감으로 사용, 비가 오는 날에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다. 이번 시즌은 특히 비브람의 MEGAGRIP(메가그립) 아웃솔로 접지력이 더해져 오래 걸어도 발에 피로감을 덜어준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컬래버 맛집’ 스파오, ‘잔망루피’와 협업

뽀로로 보다 인기 많은 캐릭터
선착순 700명에 이모티콘 제공

이랜드윌드가 운영하는 SPA 브랜드 스파오가 캐릭터 ‘잔망루피’와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출시했다고 7일 전했다.

잔망루피는 인기 아동 애니메이션 뽀로로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아이들뿐 아니라 MZ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다. 뽀로로보다 더 큰 인기를 끌며 1020세대 이모티콘 다운로드 순위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스파오에서 출시되는 상품은 귀여운 루피의 모습과 화이트 있는 멘트를 담은 스웨트셔츠 6종이다.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넵!’을 외치며 이른바 ‘넵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스파오는 잔망루피와의 컬래버



‘스파오X잔망루피’ 스웨트셔츠 6종 이미지. /이랜드

레이션 출시를 기념해 스파오닷컴과 이랜드몰에서 컬래버레이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선착순 700명에게 ‘잔망루피2’ 이모티콘을 증정한다.

컬래버레이션 상품은 스파오닷컴과 이랜드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은 스파오 강남점과 타임스퀘어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원은미 기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15일 개점

이마트는 부산 내 3번째이자 전국 20번째 차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연산점’을 오는 15일 정식 개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8~13일 사전개장 행사를 진행하며, 이 기간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오후 7시이다.

연산점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 중 지하 1층~지상 1층에 마련된 매장은 총 1만4148㎡(4280평) 규모이며, 지상 1~5층은 주차장으로 총 926대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다.

지상 1층에는 3967㎡(1200평) 규모의 임대 매장으로 구성돼 상품 판매뿐 아니라 식품(F&B)과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의 콘텐츠를 아우르는 총 25개 브랜드 및 시설을 유치했다.

이 중 여행을 통해 맛 볼 수 있는 타 지역 맛집을 부산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식품매장인 ‘부산미식가’를 비롯해 9개 맛집이 입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든든한 한끼” 육수당, 휴게소 최초 입점

시흥하늘휴게소점 오픈

국밥브랜드 육수당이 시흥하늘휴게소점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육수당 시흥하늘휴게소점은 휴게소 내에 입점한 첫 매장이자 시흥지역 첫 매장이자, 육수당이 입점한 시흥하늘휴게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조남 분기점과 도리 분기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 기존의 휴게소와 달리 상하행선 양방향 고객 모두 휴게

소를 이용할 수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휴게소 중 하나다.

육수당은 시흥하늘휴게소점이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지나가는 휴게소인 만큼 육수당의 브랜드와 메뉴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밥이라는 메뉴 특성상 간편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원하는 출퇴근 고객, 주말 나들이 고객들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